

ARARIO GALLERY

#354-1 Shinbu-dong Choeran Chungnam Korea 330-160 Daily 11am to 7pm T +82 41 551 5102-1 F +82 41 551 5102 www.arariogallery.com

EXHIBITION PRESS RELEASE

COLD HEARTS_Artists from Leipzig

(Included artists: Tilo Baumgärtel, Martin Kobe, Tobias Lehner, Rosa Loy, Neo Rauch, Christoph Ruckhäberle, Julia Schmidt, David Schnell, Matthias Weischer, Klasse Rautert)

April 16th – June 26th, 2005

Opening party April 15th, 6pm

It's a great pleasure that Arario Gallery show the 70 works by 9 artists based on Leipzig. The so-called New Leipzig School Paintings, by a group of young Leipzig artists with degrees from the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Academy of Visual Arts Leipzig), are the talk of the contemporary art world. Museum curators and private collectors are now faced with the prospect of waiting two to three years before they can add to their collections -- if they are lucky -- a work that hasn't yet been created.

The art market's frenzied activity around the Leipzig Painters can also, however, hide the importance of the works themselves. The rapidly changing map of the contemporary art world has solid roots in contemporary German art, especially painting. On this background the young Leipzig Painters have set out to discover the meaning of painting in modern society and to take it in new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ir research appear in two-dimensional images and effects whose diversity resides in the spiritual uncertainty and the specific social problems that Germans have had to overcome in their changing society.

The Arario Gallery is pleased to reveal, in this exhibition of 70 works from the New Leipzig School Paintings by nine young artists and three series of collaborative photos by photography students at the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the essence of a contemporary Leipzig art scene that is creating so much excitement in today's art world.

Contacts

T +82 41 620 7251 F +82 41 551 5102

E gallery@arario.com, yhjoo@arario.com

www.arariogallery.com

Upcoming Exhibition_Jonathan Meese solo show, September 10th to October 30th

ARARIO GALLERY

1. 전시 제목 Cold Hearts_Artists from Leipzig

2. 전시 기간 2005.4.16 ~ 2005.6.26

3. 오프닝 리셉션 2005.4.15 6:00 pm

4. 특별 프로그램

1) 작가 초대 및 외국 미술계 인사 초청

: Martin Kobe(artist), Tobias Lehner(artist), Julia Schmidt(artist),
David Schnell(artist), Tilo Baumgäertel(artist),
Dr. Hans Werner Schmidt(라이프치히 순수 현대 미술관 관장),
Jari Lager(런던 유니온 프로젝트 디렉터),
Heinz Ackerman(독일 컬렉터)

2) 특별 강연: 라이프치히 순수 현대 미술관 관장 Dr. Schmidt의 독일 현대미술 특강

2005.4.16 2시 홍익대학교 E동 103호

문의: 041 620 7252(아라리오 갤러리) / 02 320 1206(홍대 회화과 조교실)

5. 전시 참여 작가 및 전시 작품수

총 9명 작가 작품 70점 및 로우터 교수 클래스 합동 작업 3세트

*작가명 및 작품명/이미지는 별첨 1 참조

6. 전시 컨셉

독일 현대 미술, 특히 독일 현대 회화에 대한 관심 속에서 그 동안 꾸준히 독일 미술에 관심을 가져 온 아라리오 갤러리가 70-80년대 독일 회화사의 뒤를 잇고 있는 라이프치히의 젊은 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 보여진다.

영문으로는 “시각 예술 대학(Academy of Visual Arts Leipzig)”, 독문으로는 “그래픽과 북아트 대학(HGB: Hochschule für Grafik und Buchkunst)” 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HGB 대학 출신의 일단의 라이프치히 젊은 작가들은 “신 라이프치히 화파”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면서, 현대 미술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다. 아직 제작되지도 않은 작품들을 받기 위하여 2-3년 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미술관과 컬렉터들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의 전시에서 한 점이라도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라이프치히 작가들에 대한 미술 시장의 극적인 관심은 종종 이들의 작품이 지닌 중요성을 가려버린다. 급변하는 현대 미술의 지형도 속에서도 회화라는 전통적인 이미지 생산 방식을 끊임없이 고수해온 독일 현대 미술사에 뿌리를 둔 채, 라이프치히의 젊은 작가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회화가 지니는 의미와 그것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을 탐구한다. 그 탐구의 결과는 각기 다른 평면 효과와 이미지들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다양성 이면에는 또한 독일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독일인들이 겪어야만 하는 정신적 방황과 사회적 문제점들이 내제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신 라이프치히 화파에 소속되는 라이프치히 출신의 아홉 젊은 작가들의 작품, 총 70 점과 함께 HGB 대학의 사진학과 출신 학생들이 공동 작업한 3세트의 사진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아라리오 갤러리는 동시대 미술계에 하나의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라이프치히 현대 미술을 전반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7. 개별 작가 설명

네오 라우흐(Neo Rauch)를 굳이 라이프치히 화파의 계보에 포함시키려 할 필요도 없이 그가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현재 미술의 입장들 사이를 연결하는 소위 관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라우흐는 배움의 과정에 있을 때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불협화음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이야기의 외피에 신비스러운 것을 스며들어가게 하는 그림 구조와 회화 전통을 대변했다. 라우흐는 그만의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분명한 것과 유별난 것, 이름붙일 수 있는 것과 불가사의한 것을 불협화음적인 통일체로 결합시키고, 그것을 오래도록 영향을 주는 기억으로서 그림에 대한 관찰자의 기억에 넘겨준다.

로자 로이(Rosa Loy)의 그림은 경작과 개간의 손길 속에서 주변 환경에 세련되게 다듬어진 외형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일목요연한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들판이 경작되고 농장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서 남자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활동적인 삶”을 구현하는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다. 여성들은 쌍으로 등장하는데, 이때 쌍둥이의 존재는 사건 진행의 공식성을 표현하며, 동시에 작가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혹은 한 인간 안의 양면성을 표현한다.

틸로 바움개르텔(Tilo Baumgärtel)의 그림은 처음에 동화의 삽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추측을 불러오는 것은 그림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흔적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취가 풍부한 표현 때문이다. 그의 그림들은 만화적인 그림 구성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화 구성에서 나타나는 선적인 구조는 때때로 색채주의적인 스푸마토 기법에 의해 무너진다. 스푸마토는 단순히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각성 상태까지 제한한다. 마치 최면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기괴한 건축물들과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에 둘러싸여 있다.

크리스토프 루크해베를레(Christoph Ruckhäberle)가 묘사한 거리와 광장, 뜰, 방은 배우들의 동작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연극 무대와 비슷하다. 공간을 부여하는 건물들은 무대의 배경 같은 인상을 주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부차적 장식물인 옷 속에 그들의 골격을 감추고 있다. 크리스토프는 순간적인 만족과 멜랑콜리, 그리고 알수 없는 비애가 과도기에 있는 장면을 표현하는데 그의 작업 모두를 건다.

다비트 슈넬(David Schnell)의 그림에서 중심투시도법은 소실점을 통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효과를 발산하는 공간의 배면을 변형시킨다. 이곳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잠재적인 속도감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을 준다. 정확하고 면밀한 도안과 함께 그가 사용하는 강렬한 색채들은 슈넬이 색채주의자임을 드러낸다.

마티아스 바이셔(Matthias Weischer)의 그림에서 고전적인 장르인 '실내화'는 증거 확보와 연출적인 것을 위한 장소로 변한다. 언제나 당면한 문제에만 해당하는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해결책은 건축자재와 공구를 파는 상점에서 구입한 싸구려 제품들의 도움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늑한 분위기와 그리움에 대한 투영을 드러낸다.

바움게르텔, 루크해베를레, 슈넬, 바이셔는 “신 라이프치히 화파”의 중심적인 화가들이다. 이들 핵심적인 멤버들 외에도 유사한 입장을 대변한 다수의 화가들이 존재하고, 이들 역시 그들과 동일한 평가를 누리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토비아스 레너(Tobias Lehner)**다. 바흐의 음악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작업하는 토비아스의 그림들은 현란한 색채의 폭풍우에 마치 구멍을 뚫은 것처럼 보이는 무늬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평평하게 구성된 평면은 후면의 공간들과 교차하고, 회화적인 것과 도안적인 것이 하나로 결합한다.

율리아 슈미트(Julia Schmidt)는 회화의 영역에서 뚜렷한 자기만의 특징을 보여준다. 슈미트는 처음에 사진처럼 극도로 사실적인 세부 묘사와 영화 기법과 비슷한 순간 포착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색조의 효과를 통해 항상 회화적인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제는 패턴과 회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변형시킨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그림이 주를 이루고 있다.

라이프치히 회화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들은 교육 도시이자 예술의 고장인 라이프치히를 대표하는 사진의 풍부한 성과를 되색시킨다. HGB 대학의 사진 학과 교수인 팀 라우테르트(Tim Rautert)의 제자들에 의해 제작된 사진 작품들은 한 학교에서 배웠다는 의식이 매우 뚜렷한 이 학교 사진 학과 출신 작가들에 의해 종종 공동 전시된다. 이들의 자기표현은 여권사진과 비슷한 규격에서 휴가지에 대한 기억이 포착된 사진, 그리고 연출 사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지만 다채로운 벽의 배경은 강한 결속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의 작품들 세 점이 설치된 아라리오의 3개의 공동 벽면은 자기표현과 자기조화를 드러내는 시각적인 지도를 형성한다.

별첨 1. 작품 리스트 및 주요 작품 이미지

Rosa Loy (8점)

Herbarium 2003 Casein on canvas 130x110cm

Die Verbündeten 2002 Casein on canvas 210x170cm

Guten Morgen 2002 Casein on canvas 70x83cm

Probe 2004 Casein on canvas 210x170cm



Teezeit 2004 Works on paper 25x18cm

Einlaß 2004 Works on paper 25x18cm

Begegnung 2004 Works on paper 25x18cm

Teppich 2004 Works on paper 25x18cm

Neo Rauch (2점)

Modellbau 1995 Oil on canvas 210x300.5cm

Wasser 2004 oil on canvas 210x300cm



David Schnell (5점)

Läufer 7 1998 Oil on canvas 120x180cm

Läufer 8 1999 Oil on canvas 120x180cm

Schwarm 2000 Eggtempera on canvas 210x150cm

Veranda Oil on canvas 140x80cm

Dorf Oil on canvas 240x160cm



Christoph Ruckhaberle (4점)

Gitarrenband 2004 Oil on canvas 280x380cm

Untitled 2003 Oil on canvas 280x380cm

Django 2003 Oil on canvas 200x200cm

Burn Baby Burn 2005 Oil on canvas 240x380cm



Tilo Baumgaertel (5점)

Arena I 2002 Oil on canvas 60x80cm

Dachboden 2001 Oil on canvas 160x200cm



Reifen 2002 Oil on Canvas 300x200cm

Untitled 2004 Black and white acrylic and watercolour drawing, 90x180cm

Untitled 2004 Video installation

Tobias Lehner (11점)

Untitled 2003 Acrylic on canvas 160x120cm

Untitled 2003 Acrylic on canvas 274x390cm

Untitled 2003 Acrylic on canvas 274x440cm



Untitled 2004 Acrylic on canvas 274x400cm

Untitled 2003 Acrylic on canvas 120x160cm

Untitled 2003 Acrylic on canvas 290x250cm

Untitled 2004 Acrylic on canvas 120x160cm

Untitled 2002 Acrylic on canvas 200x290cm

Untitled 2004 Acrylic on canvas 150x200cm

Untitled 2004 Acrylic on canvas 190x260cm

Untitled 2004 Acrylic on canvas 240x180cm

Matthias Weischer (34점)

Terasse, 2001, Oil on canvas, 190x230cm

Cembalo Zimmer, 2002, Oil on canvas, 122x105cm

o.T.(Drawing), WV78 2004 Graphite on paper 19.6x15.3cm

o.T.(Drawing), WV138 2004 Graphite on paper 9.5x12.5cm

o.T.(Drawing), WV139 2004 Graphite on paper 9.5x12.5cm

o.T.(Drawing), WV140 2004 Graphite on paper 9.5x12.5cm

o.T.(Drawing), WV153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o.T.(Drawing), WV156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o.T.(Drawing), WV158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o.T.(Drawing), WV160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o.T.(Drawing), WV163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o.T.(Drawing), WV166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170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171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175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176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177 2004 Graphite on paper 25x18.5cm
- o.T.(Drawing), WV178 2004 Graphite on paper 25x18.5cm
- o.T.(Drawing), WV189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210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237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Drawing), WV242 2004 Graphite on paper 18.5x25cm
- o.T.(Zeichnung), WV323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24 2005 Oil crayons on paper 27x39cm
- o.T.(Zeichnung), WV326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30 2005 Oil crayons on paper 27x39cm
- o.T.(Zeichnung), WV334 2005 Oil crayons on paper 28x39cm
- o.T.(Zeichnung), WV336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37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39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41 2005 Oil crayons on paper 39.5x42cm
- o.T.(Zeichnung), WV345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47 2005 Oil crayons on paper 29x39cm
- o.T.(Zeichnung), WV349 2005 Oil crayons on paper 27x39cm

Julia Schmidt (6점)

Untitled 2004 Oil on board 87x73cm

Untitled 2004 Oil on board 46x108cm



Untitled 2004 Oil on board 42x42cm

Untitled 2004 Oil on board 15.5x25cm

Untitled 2004 Oil on board 15.5x25cm

Untitled 2004 Oil on board 15.5x25cm

Martin Kobe (2점)

Untitled, 2005 Oil on canvas

Untitled, 2005

Klasse Rautert

How it looks at you, 2004, Photographic works

Ich als Tier, 2005



Kalte Hetzen, Photographic works